



글 | 장영란

오월 초부터 여름 내내 산을 울리며 우는 새가 있다. 그 새가 검은등뻐꾸기라는 걸 얼마 전어야 알았다. 뻐꾸기 울면 농사철이 시작이다. 뻐꾸기 울음소리는 뻐꾸기시계로 들던 그 소리와 비슷하다면, 검은등뻐꾸기 울음소리는 색다르다. 그 소리를 어떤 이들은 '홀딱벗고 홀딱벗고'로 듣는다. 들에서 일하노라면 검은등뻐꾸기가 "홀딱벗고 홀딱벗고"하고 울며 일손을 재촉한다.

이리 바쁜 농사철인데 오늘은 늦잠을 잤다. 새벽부터 빗소리가 들리니 맘편히 먹고 폭 잤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작은애와 둘이 함께 깨어났다. 보통은 내가 한참을 일하다 배가 고파 들어오면 작은애는 아직도 이부자리에 들어 있곤 한다. 어쩔 때는 잠에 취해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도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차는데, 오늘은 함께 깨어나니 이부자리에서 마주보며 웃었다.

# 이제부터 내가 주인

자연문맹으로부터의 탈출

농촌으로의 초대



( 아침에 어찌 일어나는가? )

저절로 깨어나 기지개 늘어지게 켜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하루를 맞이하는가? 아침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여기 써 볼까 한다.

나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편이다. 학교 다닐 때, 아침 시간은 전 쟁이었다. 깨워주어도 못 일어나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학교 늦어서 혼나는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도 했다. 시간에 맞춰 억지로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아침 입맛이 없었다. 큰애도 나를 닮았다. 아침이면 일어나지 못해 어른이 잡아끄는 대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니지, 아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지 못하고 잠이 든 애를 깨워서 어디론가 보낸 거다.

내가 어려서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 많았다. 그런 사람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어렵다. 지금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서 자라 자연을 모르는 '자연문맹'이 많다. 나 역시 그랬다. 글쓰기 교육을 하면서 '자연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남을 가르치는가!' 하는 이오덕 선생님 말씀에 자연을 알고 싶어 산골로 옮겨왔다. 그러다 가르치는 일을 그만 두고 아예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 농사를 하면서 살다보니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생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침에 해가 뜨면 몸이 자연스레 깨어나고, 배가 고파지면 아침을 든든히 먹고 그래야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다고.

도시서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따라서, 시간에 맞춰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시골로 와서도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다. 먼동이 밝아오기 무섭게 뒷집 아저씨가 경운기에 시동 거신다. 탈탈탈. 그 소리에 잠이 깨 보면, 온 마을이 다 움직인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새벽같이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낫선 젊은이가 마을로 들어와 산다니 모두 관심을 가지는데 긴장이 안 될 리 없었다. 또 아이들이 먼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해줘야 했다.

이 책은 1996년 10월 10일 출간된 『자연에서 살아가는 법』의 개정판이다. 이 책은 1998년 10월 10일 출간된 『자연에서 살아가는 법』의 개정판이다. 이 책은 1998년 10월 10일 출간된 『자연에서 살아가는 법』의 개정판이다.

( 추천도서 )

**계간 (귀농통신) · 회원들에게만 배부하는 전국귀농운동본부에 계간지로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안내한다.**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 전문희 글·김문호 사진 | 화남 | 302쪽 | 값 9,500원 · 생태주의자가 쓴 산야초 이야기로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우리 산야초를 개발하고 보급하기까지의 전과정을 자연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쓴 책이다.

**《여기 사는 즐거움》** 아마오 산세이 지음 | 이반 옮김 | 도솔 | 288쪽 | 값 8,500원 · 일본의 시인이자 철학자, 농부인 아마오 산세이의 수필로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 현의 야쿠섬에서 25년간 살면서 느낀바를 담은 자연예찬론이다.

**《아궁이불에 감자를 구워먹다》** 전희식 지음 | 역사넷 | 280쪽 | 값 9,800원 · 노동운동가로 알려진 전희식 씨의 귀농일기로 귀농이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희망의 유토피아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제는 이곳 삶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새로 집을 짓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다. 안방에서 시계가 사라졌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해가 일찍 뜨는 여름에는 일찍 일어나고 해가 늦게 뜨는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곤 한다. 날이 맑아 새벽부터 새가 우는 날은 나도 활기차게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고, 처마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날은 꾸물꾸물 움직이게 된다.

( 닭띠인 남편은 새벽 체질이다. )

새벽에 먼동이 트면 일어나 한나절 일을 하고 나서 아침을 먹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날보다 하루가 더 보람차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한바퀴 돌아오면 산나물이 아침 밥상에 푸짐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 좋다. 여름철 아침 먹기 전에 두어 시간 일하는 게 한낱 땀벌에 몇 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좋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억지로 해서야 쓰겠나.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아닌 사람은 아닌 대로 자기 리듬에 맞춰 살아야 자연에서 사는 맛이 있는 게 아니겠나.

아이들에게 아침을 자연스레 맞게 해주려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 시간에 맞출 일 없으니 아이들은 자기가 잘 만큼 자고 일어난다. 늘어서게 자고 일어나기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움직이기도 한다. 큰애는 일어나면 자기 텃밭을 한바퀴 돌아보고 아침거리를 마련해 들어온다. 싱싱한 푸성귀를. 작은애는 한 시간도 더 이불 속을 지키고 있곤 한다. '오줌도 안 마려운가!' 신기하다.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책도 보고, 수도도 떨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욕한 날은 훌쩍 벗고 자니, 훌쩍 벗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뭉개는 썸이다. 그렇게 잠이 다 깨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 오줌이 마렵고 목이 마르면 그제야 방에서 나온다. 자기 몸의 리듬에 따라 하루를 시작한다.

작은애를 보며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도 되나, 게으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찍 일어나라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 소리쳐 깨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라는 생각은 내 삶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주입된 것이 아닐까?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찍 잠에서 깰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겠나. 내가 어려서부터 몸의 리듬에 맞지 않는 아침을 맞이해 왔기에 늘 종종거리며 살아온 게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곤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다. 아직도 무심결에 시계를 보곤 한다. 하지만 시간 맞춰 해야 할 일이 없으니 시계 바늘이 멈춘 시각은 그저 그러려니 참고할 뿐이다. 와, 해가 일찍 뜨네, 아침이 흐려서 그런 건가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 내 몸 상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묻고 일을 해 나가려 한다. 새벽부터 산으로 들로 다니며 한바탕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몸이 따르지 않으면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아침을 맞을 수 있다고, 그건 게으른 것과 다른 것이라고. 일 욕심을 내어 나를 일에 맞추려 하지 말고, 몸에서 일이 풀려나가는 만큼 일을 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 보자고.

요즘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고픈 만큼 자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생활. 진짜 웰빙이다. 돈 주고 사는 소비로서 웰빙이 아니라 진짜 웰빙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심이 어떨는지. **▶▶▶**